

MERITZ 조선/기계 Daily

2019. 3. 21 (목)

MERITZ
메리츠증권

조선/기계

Analyst 김현

02. 6098-6699

hyun.kim@meritz.co.kr

RA 박진한

02. 6098-6675

jinhan.park@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9,059.0	15.8	128,000	-1.2	-0.8	0.0	-0.4	89.2	42.8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732.9	21.6	352,000	0.3	-0.7	-1.3	1.7	4.7	4.0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538.4	5.8	26,450	-3.6	-18.1	9.5	19.1	2.5	2.2	0.2	0.2	9.3	9.7
현대건설기계	977.2	9.1	49,600	-2.2	-12.2	21.7	16.2	3.2	2.3	0.3	0.3	11.7	13.9
삼성중공업	5,638.5	19.0	8,950	-1.9	-0.4	17.0	20.8	56.5	28.0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060.7	11.0	28,550	-0.5	-10.5	-16.2	-16.4	10.0	14.5	0.8	0.8	9.0	5.2
현대미포조선	2,324.6	12.9	58,200	-0.5	-3.5	-5.0	-3.0	12.6	9.1	0.4	0.4	3.6	4.8
한진중공업	126.2	3.6	1,190	0.0	N/A	N/A	-28.1	23.9	6.0	0.2	0.2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208.0	21.5	81,300	-1.7	-33.6	-17.8	-24.0	14.4	14.0	2.0	1.8	14.6	13.3
두산밥캣	3,067.6	25.5	30,600	-1.4	-2.7	-3.3	-2.9	11.2	10.6	0.9	0.8	7.4	7.6
현대로템	1,891.3	3.2	22,250	-0.2	-22.2	-20.7	-20.1	28.7	19.6	1.3	1.2	4.5	6.3
하이룩코리아	263.4	47.6	19,350	2.1	4.9	21.0	17.6	8.8	8.0	0.7	0.7	8.8	9.0
성광벤드	318.9	15.5	11,150	1.8	0.5	-3.0	-2.2	985.6	40.0	0.7	0.7	0.1	1.8
태광	296.8	11.6	11,200	-0.9	-2.6	-4.5	-4.3	66.9	32.7	0.7	0.7	1.0	2.1
두산중공업	941.9	9.4	8,040	-0.1	-12.0	-28.8	-17.4	-20.8	8.4	0.3	0.4	-0.1	3.9
두산인프라코어	1,598.7	16.6	7,680	-0.5	-0.8	-1.8	1.2	5.3	5.6	0.9	0.8	17.7	13.9
HSD엔진	167.7	3.8	5,090	0.4	3.9	-8.3	-3.6	-13.4	N/A	0.7	N/A	-4.7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572.5	15.5	36,650	-0.9	3.7	16.0	14.9	53.5	24.9	3.2	2.9	6.1	12.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792.8	15.3	34,450	-1.0	5.5	4.1	6.0	142.7	25.7	0.8	0.7	0.6	3.0
LIG넥스원	807.4	8.5	36,700	3.4	-4.2	9.5	-0.7	84.5	27.3	1.7	1.3	2.4	5.2
태웅	203.1	4.2	10,150	0.0	-7.3	1.0	-3.3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47.2	4.6	9,160	1.3	7.9	20.5	18.7	-19.3	21.5	3.4	2.9	-16.2	14.5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 추천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중 · 대우조선 합병, 해결책 아냐

독일 연방카를트슈타트는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방향을 묻는 질문에 침체·불황에 빠진 기업이 회생을 위해 합병을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불황 탈피를 위한 '구조조정 합병'은 일반 기업결합 심사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판단한다.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경쟁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임.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의 관계자도 인터뷰에서 기업 생존을 위한 것만은 따로 있다고 답했다. 합병하지 않았을 경우 한 회사가 부도나고, 그 결과 소비자에게 큰 타격을 주는지 살펴볼. 또한 회사가 직접 합병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회사 측이 제시한 증거는 매우 엄격하게 본다고 단서를 달았다.

합병을 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결국 유럽 선주를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을 입증해야 하며, 1) 소비자 영향과 2) 경쟁유지 여부가 관건임. 소비자는 선주를 포함함.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130일 이상도 걸릴 수 있다고 알려졌다. (헤럴드경제)

S Livanos returns to Japan Marine United for second VLCC

그리스 S Livanos는 일본 JMU(Japan Marine United) 조선소에 VLCC 1척을 발주함. 기존에 발주했던 VLCC에 이은 발주로, VLCC는 301,500DWT급임. 인도는 2020년에 예정됨. 이전에 발주된 VLCC는 2018년에 인도되었고, 오일메이저 ExxonMobil에 7년간 하루 3.1만달러에 계약됨. 이번 선박도 ExxonMobil에 운송되는지는 불확실함. (TradeWinds)

China Shipbuilding Industry Corp merging Dalian and Bohai yards

중국 국영 조선그룹 CSIC는 내부 구조조정 일환으로 Dalian 조선소(DSIC)와 Bohai 조선소가 합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CSIC는 이번 합병은 중국 정부의 공급측면 개편 정책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으며, 잉여 생산능력 감축 및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함. CSIC는 신조 수요감소로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절감에 노력 중이며, CSSC 그룹과 합병이 논의되고 있음. (TradeWinds)

Scorpio handymax set to STS first of Euronav LSO cargo

탱커선사 Scorpio Tankers의 handymax 선박은 Euronav ULCC(Ultra Large Crude Carrier)에 저유항유를 선적하기 위해 몰타에 도착함. STS(Ship-to-Ship) 방식으로 선적할 계획이며, ULCC는 441,561DWT급임. IMO 2020 규제가 다가올수록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저유항유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움직임이 더 나타날 전망이다. (TradeWinds)

두산중, 1.6조원 인도네시아 발전소 건설 수주... "친환경 발전사업 지속 확대"

두산중공업은 인도네시아 IRT사에서 1.6조원 규모 JAWA 9, 10호기 화력발전소 건설계약을 수주함. 현지 국영 건설업체 HK와 컨소시엄을 이뤄 수주했고, 총 공사비는 1.9조원으로 알려졌다. 1,000MW급 2기를 제작해 공급할 계획이며, EPC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 공사는 2024년 완료를 목표로 함. (한국경제TV)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검토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3월 21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3월 21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3월 21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erry
meritz!